

박옥남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김춘선**

目 录

1. 서론
2. 과거의 고향-민족공동체의 형성 발전과 삶의 양상
3. 현재의 고향-민족공동체의 해체 과정
4. 결론

1. 서론

박옥남¹⁾은 중국 조선족 여성 작가로서 1981년에 등단하여 2000년대 조선족 문단에서 창작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몇 년 전에는 그의 단편소설집 『장손』이 ‘준마상’²⁾ 후보로까지 오른 적이 있다. 그는 산업화, 도시화 시기 중국 조선족이 처한 사회 현실을 다룬 작품들을 다수 발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3-OLU -2250004).

** 中央民族大学 朝鲜语言文学系 教授

1) 박옥남(1963-)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 승리향 양광촌에서 출생. 흑룡강성 오상조선족 사범학원 졸업. 현재 상지시조선족중학교 교사로 재직. 1981년 단편소설 「설인사」로 등단 이래 수십 편의 단편소설과 수필을 발표. 2011년에 단편소설집 『장손』을 펴냈다. 흑룡강신문 진달래문학상, 흑토문학상, 김학철문학상, 윤동주문학상, 재외동포문학상, 장락주문학상 등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했다.

2) ‘준마상’이란 중국작가협회,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국 소수민족문학의 국가급 문학상이다. 중국 소수민족작가들이 한어 혹은 소수민족문자로 출판한 장편소설, 중편소설집, 단편소설집, 시집, 산문집, 실화문학, 이론평론집, 번역작품 등이 포괄된다.

표한 작가이다. 소설이 허구성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장르이지만 박옥남의 작품들은 조선족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에 풍부한 사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박옥남은 실제로 조선족 농촌마을의 조선족학교 교사로 재직했었고 현재도 조선족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줄곧 조선족이 처한 삶의 현실에 눈길을 두면서 민족의 삶의 실태와 민족 교육이 직면한 위기 상황, 그리고 조선족 농촌공동체의 해체 과정을 진실하게 파헤치고 민족의 운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현하는 작가이다.

지금까지 박옥남 문학에 대한 연구가 주제적 특징 및 예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조선족 평론가 장춘식은 평론 「청출어람」(2007)에서 박옥남 소설의 특징 및 예술적 성과에 대해 “전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작품은 아마도 박옥남의 소설들이 될 것이다. 박옥남은 신인답지 않게 그 구수한 입담으로 시대와 민족공동체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표현함으로써 우리 소설의 품위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있다.”³⁾ 고 높이 평가하였다. 김호웅 교수는 평론 「우리 문단의 재녀 박옥남」(2008)에서 박옥남의 단편소설 「등지」(2005), 「마이허」(2006), 「장손」(2008), 「내 이름은 개똥네」(2008), 「목욕탕에 온 여자들」(2006)을 실례로 박옥남 작품의 디아스포라로서의 예리한 주제의식과 다양한 예술적 기법 및 방언에 바탕을 둔 생동한 인물 대화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⁴⁾ 오상순 교수는 「민족 정체성 위기와 소설적 대응 양상-박옥남 소설의 경우」(2013)에서 「등지」(2005), 「장손」(2008) 등 열편의 소설을 실례로 박옥남 소설의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 과정을 끈질기게 투시”하는 주제적 특징 및 여로형 구조, 인물의 전형화, 플롯의 이중 구조, 방언의 능란한 구사 등의 예술적 특징을 해명하고 있다.⁵⁾ 이상의 선행 연구는 박옥남 소설의 주제적 특징 및 예술적 특징을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해명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분석 대상으로

3) 장춘식, 「청출어람」, 『도라지』, 2007년 5호.

4) 김호웅, 「우리 문단의 재녀 박옥남」, 『연변문학』, 2008년, 12호, 87-89쪽.

5) 오상순, 「민족 정체성 위기와 소설적 대응 양상-박옥남 소설의 경우」, 오상순, 『조선족 정체성의 문학적 형상화』, 태학사, 2013년, 277-305쪽 참고.

한 작품들이 모두 2009년까지의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이후의 박옥남 소설에 주목한 것으로서 천상규, 오상순, 남서향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천상규의 평론 「팔도 사투리로 엮어가는 중국 조선족 삶의 현주소-박옥남의 팔도 사투리를 따라 그 녀의 고향을 가다」(2012)는 박옥남의 수필 「고향 사람」(2012), 실화소설 「고향」(2012)을 다루면서 “박옥남은 우리의 팔도 사투리를 능란하게 구사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조선족 작가”라고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작가의 ‘고향사람’, ‘고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있다.⁶⁾ 오상순의 평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삶의 진정성 추구」(2012)는 『도라지』 2012년 3호에 대한 격월평으로서 박옥남의 「고향」(2012)과 수필 「고향 사람」(2012)을 민족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의 내용과 방언의 사용을 분석하고 있다.⁷⁾ 남서향의 석사논문 「박옥남 단편소설 연구-200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2013)는 박옥남의 200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박옥남 소설의 주제적 특징과 예술적 특징을 해명하고 있다.⁸⁾ 선행 연구에 비해 「집으로 가는 길」(2011), 「타향살이」(2011), 「바퀴벌레」(2012), 「고향」(2012) 등 최근 년의 작품까지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박옥남의 단편소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 분석에서 깊이를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을 보여준다.

박옥남은 2000년대에도 여전히 왕성한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작가인 만큼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은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보듯이 그에 대한 연구는 개별 작품의 깊이 있는 분석에서나 총체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에서나 아직 많은 아쉬움을 보여준다. 특히 2012년에 발표된 「고향」⁹⁾은 작가의 성장기 및 청년기에 대한 추억과 귀향 체험을

6) 천상규, 「팔도 사투리로 엮어가는 중국 조선족 삶의 현주소-박옥남의 팔도 사투리를 따라 그 녀의 고향을 가다」, 『도라지』, 2012년 3호, 31-36쪽 참고.

7) 오상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삶의 진정성 추구」, 『도라지』, 2012년 5호, 145-149쪽 참고.

8) 남서향, 「박옥남 단편소설 연구-200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민족대학교 석사논문, 2013.

9) 박옥남, 「고향」, 『도라지』, 2012년, 제3호. 이하 인용문은 쪽수만 밝힘.

사실적으로 그린 자전적 성격의 소설로서 박옥남의 기타 소설들과는 구별된다. 「고향」에다 "실화소설"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데는 작가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느냐는 필자의 물음에 박옥남은 소설 내용의 90%가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허구가 가미된 완전소설과 분류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는 작가가 이 소설 내용의 진실함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작가가 고향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 소설「고향」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는 무엇이며 「고향」에서 작가의 자기 서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향」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박옥남의 「고향」에 형상화되고 있는 고향의 양상과 함께 그 의미를 해명함으로써 작가가 정신적으로 지향하는 '고향'의 의미를 살피고 아울러 작가의 자기 서사의 의미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2. 과거의 고향-민족공동체의 형성 발전과 삶의 양상

다음 국어사전에서 '고향'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1) (기본의미) 태어나 자라난 곳. 또는 제 조상이 오래 누려 살던 곳. (2)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정답게 느끼는 곳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고향」에서 작가는 출생지가 아닌 그가 성장한 오사촌을 자기의 고향, “자나 깨나 그림고 그래서 꿈속에서마저 늘 나타나군 하던 엄마 품 같은 곳”(2쪽)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실 작가가 태어난 곳은 탕원현 승리향 양광촌이며 원적은 함경북도이다. 박옥남의 아버지는 17 세에 교육 사업에 참가하여 10년을 탕원현 산하에 있는 조선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큰형의 주선으로 1963년 7월, 태어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작가와 일가 다섯 식솔을 동반하고 통하현 의산향 오사촌 조선족소학교로 전근하였는데 작가는 이곳에서 동년과 청년기를 보냈다. 이렇게 볼 때 박옥남은 자신의 출생지나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보다는 자신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성장기 중 가장 오래 지낸 곳을 고향으로 간주하고 있다. 떠난 지 22년 만에 귀향하여 풀어낸 이 소설에서 그는 산업화, 도시화 물결에 잠식되기 이전의 고향, 즉 민족공동체의 풍습과 인정이 살아 있는 고향을 복원한다.

예전에 늙은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곳은 원래 뒤마을 한족사람들의 공동묘지자리였다고 한다. 새마을을 세워야겠는데 장소가 없어 뒤마을 한족사람들이 버린 터를 주어서 공그고 다듬기를 거듭해 만들어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했다. 애들이 공부할 자리라 꺼리는 사람도 있었으나 남의 땅을 얻어서 살아야 했던 그 절박했던 형편에서는 식은밥 더운밥 가릴 계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다듬고 가꾸어낸 자리였다 이제 우리만 짓던 벼농사를 한족 농민이 이어서 짓고 있는 것이다.(15쪽)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작가의 고향은 이민족인 조선족들이 들어와 새로 세운 조선족마을이다. 새마을을 세워야겠는데 장소가 없어 뒤 마을 한족 사람들이 버린 공동묘지터를 얻어서 다듬기를 거듭해 마을을 세웠으며 꺼림직 하기는 했으나 남의 땅을 얻어서 살아야 했던 그 절박했던 형편에서는 식은밥 더운밥 가릴 계제가 아니었다는 이민 초기의 상황 서술은 이방인으로서 조선족들이 겪어야 했던 소외감과 어려움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조선족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용감한 개척 정신을 잘 보여준다.

다섯 호의 이민 식구가 맨 먼저 이곳에 발을 붙였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살림집보다도 학교를 앉힐 자리부터 운운을 했다 하니 후대교육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덕목은 이곳에서도 반짝 빛을 뿌렸던 것만은 사실이다. 전 공사 8개 마을학교를 점검해보아도 우리 학교만큼 100%의 보급률을 보장한 학교가 없다며 우리 민족을 치하하던 공사문교간부의 말이 생각난다. (중략) 늘 우리 민족을 깨끗하고 문명하고 례의 바르고 근면한 민족이라고 치하하곤 했었다.(17쪽)

소설에서는 다섯 호의 조선족 이민들이 조선족 새마을을 세우기 위해 한족 사람들이 버린 공동묘지 자리를 얻어서 학교터를 정하는 일로부터 상급에서

조달되는 학교 운영 경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생명을 개간하여 학생들을 위한 운동 기구, 악기, 무용복을 장만하고 100%의 입학 보급률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냄으로써 전체 공사 중에서도 남다른 영예를 떨쳤던 조선족소학교의 발전과 관련된 과거의 사실들을 구체적인 시간, 장소, 숫자들까지 언급하며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학교가 작가의 아버지가 20년을 근무했던 학교이자 작가의 동심을 키워준 모교일 뿐만 아니라 작가가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6년간이나 근무했던 유서 깊은 학교이므로 특별한 정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작품에서 조선족소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다른 아닌 이민족인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던 영광스러웠던 이민의 역사이며 교육에 대한 조선민족의 남다른 중시와 용감한 개척 정신, 근면한 품성, 문명정신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이 소설에서의 ‘고향’은 작가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이며 조선족의 이민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곳으로서 작가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중국 조선족 이민 역사의 단면을 펼쳐 보여주는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

정월 대보름이나 3.8절 같은 년례 행사를 맞아 또래별로 모임잔치가 있는 날에는 미담이를 모두 걷어내고 너른 방을 제공해주어 마을 아낙들은 해마다 윷놀이 장소로 우리 집을 선택하곤 했었다. 집안이 빠개지도록 “모야!” “뒤뚱이야!” 하며 목에 피대를 세우고 떠들어대던 마을아낙네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생각대로 윷사위가 나오면 개신장군들처럼 구들복판에 나서서 어깨춤을 추곤 하던 아낙들, 인도사람들처럼 배꼽춤을 춘다며 윷길을 말아 올리고 함지박 같은 엉덩이들을 흔들며 대어 배꼽을 잡게 했던 사람들, 마을 치고도 제일 뚱뚱한 아낙 몇은 기록영화에서 본대로 일본의 스모선수들을 모방한다며 윷을 치다 말고 윷판 위에서 씨름판까지 벌려 좌중에 폭소를 안겨 주기도 했었다. 흥을 몸으로 표현할 줄 알았던 우리 마을 아낙들은 술이 거나 해지면 물을 담은 양푼에다 박바가지를 얹어놓고 장단을 치면서 저마다 재간껏 자기들의 기량을 자랑하기도 했으니 뭐니뭐니해도 가장 고단한 삶을 가장 재미있게 살다 간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8쪽)

소설에서 아버지가 원래 있던 초가집 옆에 새로 한 칸을 더 이어서음으로써 집안을 넓히는 이야기는 이 때의 조선족의 이민생활이 가난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심성은 따뜻하고 소박하며 인정이 넘친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마을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 집 일을 제쳐놓고 달려와 일손을 도와주었다. 목수일로부터 미장일에 이르기까지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 일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이웃집 일을 해주었다. 아버지 또한 그런 도우미들에게 보답하느라 돈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그렇게 확대된 집인지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월 대보름이나 3.8절 같은 연례 행사 때면 또래들의 모임잔치에 선뜻 제공한다.

이 집에서 진행되는 마을아낙네들의 옷놀이는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민족 문화와 민족적인 세태 풍속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옷, 옷판, 말을 가지고 편을 짜서 노는 옷놀이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민족 고유의 민속놀이로서 중국의 조선족 마을에서는 누구나 어울리면서 함께 즐기는 놀이로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던 과거 조선족 농촌 마을의 세태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는 중국 조선족들의 강한 민족 정체성을 보여준다.

지나간 동년이 그리웠고 내 곁을 스쳐지나간 모든 것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봄이면 호드기를 불어대며 벌판을 주름잡고 여름이면 마을 뒤 개울물에서 물장구를 쳤으며 가을이면 잠자리 떼를 쫓아 골목골목을 누비고 겨울이면 썰매놀이에 해 넘어가는 줄도 몰랐던 나의 동년이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하루 일을 끝낸 어른들이 저녁노을에 물든 고샅길로 삼삼오오 떼를 지어 귀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고 집집의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풍경이 보이는 것 같았으며 마당둘레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오순도순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이웃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11쪽)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소설은 저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조선족 농촌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추억과 그리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위에서 보여주는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의 모습과 조선족 농촌마을의 저녁 풍경은 오순도순 평화롭게 어우러져 사는 민족 공동체의 정경이다. 작가가 그리워하는 옛 고향에서의 삶은 전원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삶이다. 계절을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며 성장하고 농민들은 부지런하며 그들의 먹을거리는 스스로 재배한 떡호박, 찰옥수수, 감자 따위의 자연으로부터 제공받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 속에서 사는 마을사람들 또한 소박하고 인정이 넘친다. 갓 결혼을 했거나 타향에서 새로 이사를 와서 신집살림을 꾸리는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준 집주인들이 집을 빌린 사람들이 제집을 장만해 나갈 때까지 불평 한 마디 내뱉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이나 남의 집 “복강 살이”나 “결간 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집을 빌려주었던 집주인들을 “삼은 친척”이라고 부르는 데서 이 곳 사람들이 이웃에게 가족처럼 사랑을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 이웃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임을 감지할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인정미와 민족 정체성에 의해 원래 다섯 호의 조선족 가구로 세워진 새마을이 110호가 운집해 사는 조선족 마을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마다 농한기를 리용해 개최하곤 하던 마을 운동회도 번마다 이 곳에서 열리곤 했었다. 마을 부녀회 성원들이 준비한 집체무로 서막을 여는 마을 운동회는 축구와 배구 같은 구류 종목에서 그네타기, 널뛰기, 씨름, 줄다리기와 같은 민속 종목은 물론 물동이 이고 달리기, 부인 찾아 업고 달리기, 담뱃불 붙이기, 새끼 꼬기, 바느질 퀘기와 같은 오락 종목들로 꼬박 이삼 일간 이어지며 화합의 장, 단결의 장을 만들어 내곤 했었다. 년래 행사처럼 행해지던 그 모임을 구경하기 위해 린근의 한족 사람들은 때를 지어 구름처럼 모여오곤 했다. (15쪽)

과거의 고향은 또한 민족의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전승하고 즐기던 곳이며 민족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줄다리기와 같은

은 민속놀이는 농번기를 피해 즐겨온 한국 민족의 가장 대중적인 놀이로서 중국의 조선족 농촌마을 운동회에서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한 민속놀이는 흥을 돋우고 서로 즐기는 놀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아를 피해, 삶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하게 된 조선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의 문화를 전승하고 널리 알리는 자부심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삶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한 민족적 유대감과 건강한 생명력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묘사에는 작가의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감과 자부심 및 민족 정체성이 뚜렷이 배어 있다.

끊임없이 조선족 마을의 폐쇄화 현상을 부각시켜 민족의 위기를 강조하던 박옥남의 이전 작품과는 달리 이 소설에서는 무릉도원과 같았던 조서족 마을의 옛풍경을 세밀하게 되살려내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과거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¹⁰⁾ 작품 「고향」이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고향은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그리운 추억이 서린, 민족의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아직 경제적으로는 낙후한 이 민족공동체가 평화로운 “짜장 살맛나는”(11쪽) 세계로 영위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순박함과 인정미 그리고 민족정체성에 의한 통일된 인식 때문이다. 작가는 과거의 순박한 심성과 넘치는 인정, 그리고 민족문화의 전통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볼 때 박옥남이 정신적으로 지향하는 고향은 순박하고 인정이 넘치며 민족문화가 전승되는 이상적 민족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현재의 고향-민족공동체의 해체 과정

박옥남의 소설들은 조선족 농촌공동체를 형상화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민

10) 오상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삶의 진정성 추구」, 『도라지』, 2012년 5호, 147쪽.

족의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지켜지던 과거의 민족공동체의 삶의 양상과 산업화, 도시화 과정 속에서 해체되어 가고 있는 조선족 농촌마을의 삶의 양상이 비교되면서 그려지고 있는데 작품 「고향」에서도 작가는 전통적인 조선족 농촌마을로서의 과거의 고향과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고향이 뚜렷이 대비되면서 묘사되고 있다.

작가가 성장하던 시절을 보낸 과거 고향의 삶의 환경과 비교할 때 눈앞에 펼쳐지는 현재의 고향은 외적으로 크게 변화된, 혹은 크게 발전된 모습이다. 통하현 성에서 송화강 강줄기를 따라 동으로 약 40 리가량 떨어진 이 조선족 마을은 “예전엔 현성에서 고향마을까지 정해진 교통 수단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기껏해야 지나가는 한족 사람들의 말 마차나 어쩌다 움직이는 마을의 경운기가 현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 도구였었다. 그것마저 얻어 타지 못할 때는 마을에서 현성까지 40 리 길을 도보로 걸어야 했다”(6쪽) 그런데 지금은 고향마을 이름이 역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버스 노선도의 한 중앙에 박혀있다. 집집마다의 터전 주위에 둘러져 있던 버들 울타리들이 모두 일매진 비술나무 울타리로 바뀌어 정연하면서도 보기 좋았고 마을길도 구석구석까지 시멘트로 포장되어있었고 중심길 양쪽엔 가로등이 즐비하게 서있었으며 타일로 걸벽을 바른 새 벽돌집들도 여러 채 보였다. 이처럼 일변한 고향을 바라보면서 작가는 “요 근래 들어서서 출국바람이 불면서 폭격을 맞은 것 같이 나날이 폐허가 되어간다던 고향마을이 아니었던가?”(7쪽) 라고 감탄을 마지 않는다. 이처럼 저자의 고향마을은 개혁개방과 산업화, 도시화의 혜택을 입어 생활환경이 많이 편리하게 발전되었다. 그러나 고향마을 속으로 들어선 후 추억을 따라 작가가 살던 집, 마을의 공터, 학교 자리, 학교 운동장, 벽돌 교사, 논밭 등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부각되는 것은 너무도 피폐해져 있는 고향마을의 모습이다.

마을을 돌며 구석구석에 널려 있는 초가집의 수효를 세여 보니 아직도 원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스무 채, 그중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겨우 11채, 나머지는 바야흐로 쓰러져가고 있거나 이미 쓰러진 상태였다. 사람이 살고

있는 11채의 초가집을 찾아 들어가니 단 두 집만 면목 있는 조선족이 살고 있을 뿐 나머지 아홉 채에는 모두 새로 이주해온 한족 식구들이 살고 있었다. 원래는 110호가 운집해 살았던 마을에 호충이 줄어 이제 조선족은 17 가구밖에 남지 않았고 그 인구는 24명, 그마저 운신을 못하는 노인네가 대부분이다 보니 중심거리에 한식경을 서있어도 아는 얼굴을 만날 수가 없었다. (중략) 호젓하니 큰 방에 혈혈단신이 아니면 고작해야 량주 두식구가 살고 있는 집들은 사람의 온기가 부족해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8-9쪽)

위의 인용문에 제시되어 있다시피 현재의 고향에는 조선족 사람들이 거의 떠나버려 조선족보다 한족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 원래는 조선족이 110호나 운집해 살았던 마을인데 현재 조선족은 17 가구밖에 남지 않았고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은 24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 운신을 못하는 노인네가 대부분이다. “사람의 온기가 부족”(9쪽)한 현재의 고향에선 과거의 인정미가 넘치고 삶의 활기가 차고 넘치던 모습, 민족의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지켜지던 정취를 더는 찾아볼 수가 없다. 마치 조선족 농촌마을에 대한 조사보고서라도 되는 양 명확한 숫자까지를 제시하면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인구와 사는 형편을 제시하고 있는 위의 인용문은 현재의 고향 현실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통해 조선족 농촌공동체가 해체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화 시기의 조선족 농촌마을을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잃어버린 민족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현재의 파헤쳐진 모습에 대비시켜 강하게 환기시켜 준다. 현재의 고향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은 서려있지만 더 이상 어머니 품 같은 장소가 아니다. 고향이라고 찾아왔으나 중심거리에 한식경을 서있어도 아는 얼굴을 만날 수가 없다. 옛집을 찾아갔더니 그를 수상쩍게 응시하던 한족 아낙이 “웨이야?!” 하며 껍 소리를 질러 장황한 해석을 해야 했다. 마을의 공터를 찾아갔더니 낯선 사람을 보고 황둥개가 미친 듯이 짖어대고 옷통을 훌렁 벗어던진 나그네가 경계의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어서 쏘아보는 그 눈길에 그만 주눅이 들어 뒤 걸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현재의 고향에서는 작가 자신이 오히려 이방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나는 마을 서남쪽 귀퉁이에 있는 학교 자리를 찾아가 보았다. 우리 아버지가 20 년을 근무해온 학교이자 내 동심을 키워준 모교일 뿐만 아니라 1983 년도 부터 1989 년도까지 6 년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가 근무했던 학교, 참말로 유서 깊은 곳이었다. 1958 년도에 마을이 서면서 함께 지었다는 초옥으로 된 여덟 간 짜리 교사는 우리 아버지가 퇴직을 하던 해인 1983 년도에 열네 간 짜리 벽돌 교사로 대체되었는데 벽돌 교사로 바뀌고 겨우 12 년 만에 다시 폐교를 당하는 비운을 맞은 것이다. 200 명 가까이 되는 학생을 거느린 일교 지장이었던 우리 아버지는 학생들 앞에선 항상 위엄을 잃지 않는 선생님이요, 학생을 다스림에서도 매서운 선생님이요 소문난 사람이었다.(13쪽)

다섯 호의 조선족 가구가 이곳에 새마을을 세울 때 그들은 자기들의 살림 집보다도 학교 건설을 더 중요시했다. 민족의 후대 양성을 중시하는 민족정신에 힘입어 생명을 일구어 학교 살림을 갖추고 초가였던 교사가 벽돌 교사로 발전하고 학생들이 200명 가까이로 늘어났던 이 학교의 영예는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과거의 고향에 대한 회상에서 보다시피 작가는 자기 민족어로 글을 배워주는 조선족학교를 남다르게 우수하게 꾸려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전체 공사 중에서도 훌륭하기로 이름을 떨쳤던 영광을 많은 편곡을 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학교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조선족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찾아 도시로, 외국으로 떠나가면서 폐교를 당했고, 벽돌교사는 이름 모를 한족사람의 집이 되었으며, 학교운동장은 논밭으로 변하고 말았다. 조선족학교가 폐교를 당했다는 것은 조선족 사회의 심각한 교육 위기의 현실문제를 보여준다. 민족교육의 위축은 민족문화의 전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서는 민족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아버지가 ‘일교지장’으로 20년간이나 근무했었고 그 자신도 6년간 근무했던 학교가 폐허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이곳에 우리 말과 글을 배우던 조선족학교가 자랑스럽게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이제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 전설로나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작가는 허무함을 금할 수 없다.

작가의 눈에 비친 현재 고향의 변화된 세대 또한 서글픔을 금치 못하게 한

다. 소설에서는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 술 한 병 수건 한 장 양말 한 켤레로도 그 성의와 친근함이 전달될 수 있었던 과거의 결혼 잔치,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와 구경해 주고 축복해 주고 거들어 주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웃으며 즐기던 마을잔치였던 고향의 전통 혼례식에 대해 소상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결혼잔치는 물론 생일잔치도 모두 현성에 나가서 식당을 찾아 한 끼 식사로 끝내버리는 변화된 풍속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간단하고도 실용적이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재의 결혼잔치가 그 동안 뿌려놓은 축의금을 회수해 들이기 위한 연극 같은 잔치가 더 많다는 것은 도시화의 물결에 의해 과거의 아름다운 풍속과 소박한 정서가 사라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턱을 낸다는 소식을 듣고 적막한 마을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진풍경이 벌어질듯 해서 한껏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작가가 또 한 번 실망했다는 서술은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회귀의식을 강하게 보여준다.

현재의 고향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선족 농촌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면서 민족공동체가 다원공생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만 짓던 벼농사를 한족 농민이 이어서 짓고 있는 것이다.”(15쪽) 이 마을로 농사 지으러 들어온 한족이 무려 30호에 이르는 것이 마을의 실상이다.

이웃에 사는 한족 새 색시가 풋고추 뜯으러 왔다며 인기척을 냈다. 큰어머니 혼자서 채마전을 다룰 수도 없거니와 다루어낸다 하더라도 혼자서 얼마 먹지도 못하기에 한족 아낙더러 대신 채마전을 불이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남새는 두 집에서 나누어 먹기로 했단다. 그렇게 제집 채마전을 남의 집에 부탁한 집이 큰어머니네 말고도 여러 집이라고 했다. 모두가 하나같이 일흔을 넘긴 로인호들이라고 했다. 그중 두 집은 채마전은 물론 살림살이까지 몽땅 한족 아낙에게 맡기고 사는 형편이란다. 반려를 잃고 혼자 사는 몸인데다 수족이 불편하여 밥 짓는 일도 할 수 없는지라 도급지를 내여 주고 나오는 돈으로 한족 아낙의 보살핌을 사서 살아간단다. 예전에 3대 4대가 한집에서 오구구 모여 살며 천륜지락을 누리던 민족공동체의 삶의 방식 또한 이 마을에선 영원한 력사가 되어버린 것이다.(18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조선족 청장년들이 도시로, 한국으로 떠나버리면서 전통적인 조선족 농촌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깨어지고 문화와 민족이 서로 다른 조선족과 한족이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면서 공존 공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족 사람이 조선족 마을의 논과 집을 사서 이사를 온다는 것은 조선족 농촌 마을이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오던 조선족 농촌마을에 한족들이 들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상호간에 문화적 교류와 융합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선족 젊은이들이 거의 다 떠나버린 조선족 노인들에게는 일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며 인구에 비해 땅이 부족한 한족들에게는 노동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땅과 일감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마을 조선족 촌장을 보더라도 시골에 있는 기와집은 한족 사람에게 세를 놓고 도급지와 개간지 20여 쌍을 손수 농사를 짓지 않고 몽땅 한족 사람들에게 도급주어 일 년에 양도금만도 20만원이 넘어 현성에서 새 주택을 장만해놓고 자가용을 끌고 다니며 별로 하는 일없이 소일하며 지낸다. 그리고 조선족 처녀들이 시골 마을을 다 떠나갔기에 “한족 색시든 조선족 색시든 여자가 생겨 장가를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 세월이” 되었다. 한족 처녀와 혼약을 맺은 이 마을 조선족 총각이 신부감을 데리고 부모가 일하고 있는 한국에 놀러 갔던 차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방금 돌아왔는데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현성거리에 나가서 재탕으로 잔치턱을 낸다고 한다. 이 마을 동창이 운영하는 음식점엔 동네 사람들보다 현성에서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게다가 “현성에서 제일 가까운 조선족마을이라 민족 음식을 주요 메뉴로 올리는데 희한하게도 주방장은 한족이었다.”(25쪽)

이처럼 그들은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한편, 서로 협조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며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타협과 공존의 정신이 있기에 마을에 남아있는 조선족 노인네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보편적으로 소망하는 삶의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조

선죽 농촌마을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족 농촌마을은 오늘날 이미 다원공존의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고향」에서 촌장은 “땅만큼 실속 있게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준 것은 없”다고 한다. “현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세를 빌어 민속촌을 운운하고 있다는 촌장은 명년엔 마을에 우선 상하수도를 놓고 하나하나 일을 벌려볼 심산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고충이라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고향땅으로 돌아와 같이 일할 기미를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남에게 내주었던 땅을 걷어 들여 정책 좋고 시세 좋은 농사일을 다시 한 번 본때 있게 해볼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면 좋겠단다”(26쪽) 고향을 떠나간 시골사람들이 고향마을로 돌아오지 않는 그 원인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화려한 도시생활에 익숙해진 시골사람들이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고달픈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사정과 많이 관련될 것이다. 이러한 이농 현상과 고향 떠나기의 현상에 대해 「고향」은 작가의 이전 소설들에 비해 상당히 개방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고향이란 무엇일까? 사진폴이대로라면 자기가 나서 자란 곳이고 자기 조상이 오래 동안 누려 살던 곳이 바로 고향이란단다. 객지에서 즐퐁목우를 하는 사람이 돌아와 기대고 싶은 곳도 고향일 것이고 밖에서 부귀공명을 얻은 사람이 금의환향을 해보고 싶은 곳도 고향일 것이다. 찾아가면 반갑다고 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고향이요 지나간 추억거리를 들추어내며 함께 회포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고향일 것이다. 그런데 고향마을엔 그런 추억거리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고 있다. 이제 이대로 좀 더 세월이 지나면 고향의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고향땅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요 고향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이다. 고향마을은 시나브로 사위여가고 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살던 마을을 떠나는 고향마을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자기의 보금자리를 틀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쾌한 삶의 서사시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그곳은 모름지기 그 사람들의 또 다른 고향이 될 것이다.(26쪽)

위의 인용문에서 본다면 박옥남의 고향에 대한 인식은 탄력적이고 복합적

이다. 실제로 작가는 출생지 탕원현 승리향 양광촌이 아니라 태어난 지 6개월 때 이사 와서 청년기까지 살면서 정이 든 통하현 의산향 오사촌이란 곳을 고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곳이야말로 그의 그리운 과거가 있고 반갑게 맞아 주는 사람이 있고 자랑스러운 추억거리가 있는 곳이다. 박옥남에게 있어서 고향은 다름 아닌 내가 살아가는 곳이며 지나간 추억거리를 담고 있는 곳이며 장쾌한 삶의 서사시를 만들어내는 곳이다.¹¹⁾ 이 소설에서도 조선족 농촌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데 대한 아쉬움과 서글픔이 고스란히 나타나지만 이전 소설들에 비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 및 타향살이에 대한 개방적인 견해가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농촌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박옥남의 소설 「고향」에 나타난 고향을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고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가가 그리워하는 과거의 고향이 순박하고 인정이 넘치며 민족의 전통 문화가 지켜지는 민족공동체의 상징이고, 순박한 심성과 넘치는 인정미 그리고 민족의 전통문화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로 제시되고 있다면, 작가가 서글픔을 금치 못하는 현재의 고향은 도시화의 물결에 의해 해체되어 가고 있는 민족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 가는 가치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도시화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라는 심각한 물음을 던진다.

박옥남은 자신의 고향에서의 체험을 통해 그의 정신적 고향이 사라져가고

11) 천상규, 「팔도 사투리로 엮여가는 중국 조선족 삶의 현주소-박옥남의 팔도 사투리를 따라 그 녀의 고향을 가다」, 『도라지』, 2012년 3호, 35쪽.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고향의식은 이 시대의 중국 조선족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전까지 중국 조선족의 대부분은 주로 농촌에서 조선족끼리 마을을 단위로 생활하면서 조선족의 전통문화를 잘 유지하며 살았다. 그러므로 대부분 조선족들에게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공간 이던 조선족 마을이 고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급격히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고 한국을 비롯하여 해외로의 출국바람이 일면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조선족 마을은 급속도로 해체되게 된다.

「고향」은 작가의 고향을 소재로 조선족들이 중국에 이민 와서 새마을을 세우고 자리 잡는 과정 및 민족의 전통이 지켜지던 과거의 삶의 양상과 함께 도시화 물결에 의해 조선족 마을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섬세하고 정감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민 온 조선족들이 민족의 학교를 꾸려 후대 양성에서 영광을 떨쳤던 조선족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함께 도시화 물결에 의해 폐교의 비운을 맞은 조선족 농촌마을 학교의 역사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한족들이 버린 땅을 다듬고 가꾸어 벼농사를 지음으로써 입쌀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의 부러움을 샀던 고향 마을의 영광과 함께 도시화의 물결에 의해 조선족 농민들이 대량으로 떠나감으로 하여 이제는 조선족들만 짓던 벼농사를 한족 농민들이 이어서 짓고 있는 변화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옥남은 이민 3세이다. 이민 3세의 기억을 쏟아내고 있는 이 소설의 내용은 조선족 이민의 삶과 역사에 대한 증언과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고향」을 창작하던 시기에 중국 주류 문단이나 조선족 문단에 실화소설 창작의 흐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른다는 작가의 말을 통해 이 작품에 실화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이 문단의 주류 흐름을 따른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실화소설이란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작품 속 내용의 90%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히 허구를 바탕으로 한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평가받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작가의 발언은 박옥남이 소설 속 내용의 진실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 했음을 증

명한다. 이러한 창작의도 및 박옥남이 줄곧 민족공동체에 대한 강한 애착과 사명의식을 보여준 작가임을 감안하면, “이제 력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전설로나 남을” 조선족들의 삶과 역사의 한 사례를 증언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의식 자체가 문학행위의 주체인 작가에게 있어 고향을 소재로 한 자기서사의 강렬한 창작동력이 되기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參考文獻

- 김호웅, 「우리 문단의 재녀 박옥남」, 『연변문학』, 제12호, 2008.
- 남서향, 「박옥남 단편소설 연구-200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민족대학교 석사논문, 2013.
- 박옥남, 「고향」, 『도라지』, 제3호, 2012.
- 오상순, 『조선족 정체성의 문학적 형상화』, 파주시: 태학사, 2013.
- 오상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삶의 진정성 추구」, 『도라지』, 2012년 5호.
- 장춘식, 「청출어람」, 『도라지』, 제5호, 2007.
- 천상규, 「팔도사투리로 엮어가는 중국조선족 삶의 현주소-박옥남의 팔도사투리를 따라 그녀의 고향을 가다」, 『도라지』, 제3호, 2012.

Abstract

The Connotation of Hometown in Park Ok-Nam's Novel

Jin Chunxian

The non-fiction novel "Hometown" is based on a true story of the author Park Ok-Nam. The book tells a story of Korean immigrants relocated to China and their accomplishments.

The non-fiction novel "Hometown" is based on a true story of the author Park Ok-Nam. The book tells a story of Korean immigrants relocated to China and their accomplishments. Park Ok-Nam has said "90% of the content of Hometown is real, and I added the title Based on True Stories in order to distinguish it from the pure fiction novels." This indicates that the writer consciously emphasizes the authenticity of the story. Therefore, we can say that Hometown has recorded the memories of three generations of immigrants, and has the connotation of proving and recording the life and history of Korean immigrants.

Key words : Park Ok-Nam, Hometown, the national community, based on true stories, the record of history.

투 고 일 : 2018. 7. 10. / 심 사 일 : 2018. 7. 15.~ 2018. 8. 15. / 게재확정일 : 2018. 8. 20.
--